

## 제2회 모스크바 한·러 학술대회 참관기 ‘남·북한-러시아 관계에서 1차 사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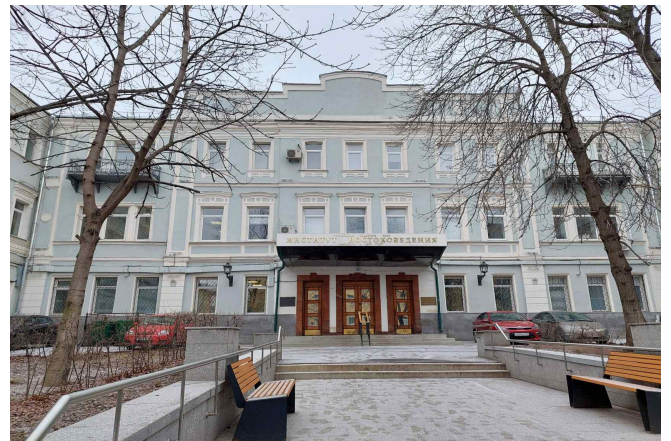
고광열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겨울방학을 맞아 러시아를 1년 반 만에 찾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찾았을 때 이유 없이 두 시간 동안 공항 입국 심사장 앞에서 억류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니 억류된 다양한 국적의 사람 수십 명이 구석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 컸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입국에 성공했다. 이번 겨울 러시아 모스크바는 예년보다 따뜻했다. 한 달이 넘게 길거리에 눈이 쌓이지 않은 모스크바의 풍경은 난생처음 보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내복도 가져갔지만, 며칠 입다가 금세 벗어 던졌다. 너무 두꺼운 외투를 가져간 탓에, 조금만 걸어도 몸이 땀에 젖었다. 겨울에 함부로 모자를 벗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러시아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지만, 이번에는 때때로 모자를 쓰지 않아도 전혀 춥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 2월 13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회 모스크바 한·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이 학술대회는 러시아학술원 산하 동방학연구소, 한국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GIST)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가 주최하는 대회였다.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사와 남한/북조선-러시아 관계 연구에서 1차 사료의 역할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었다. 학술대회 전날까지도 모스크바에서 눈 구경하기가 어려운 희귀한 광경이 지속됐는데, 당일 아침이 되자 거리에 눈이 조금 흩날렸다. 그러나 로즈데스트벤카 거리에 있는 동방학연구소 건물에 도착할 즈음에 눈은 금세 그쳤고

거리에도 눈이 거의 쌓이지 않은 채로 녹아 버렸다. 신발도 젖고 바닥도 미끄러워서 걷기도 불편한 러시아의 눈 덮인 겨울 거리를 걸을 때는 불평이 많았지만, 막상 눈 없는 러시아는 겨울 러시아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동방학연구소 전경 (출처: 저자 제공)

러시아학술원 산하 동방학연구소는 1818년에 설립됐으며 지난 2018년에 설립 200주년을 기념했다. 처음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국학술원 산하 아시아박물관으로서 200년 역사의 막을 올렸다. 러시아 제국 시기 아시아박물관은 동양에 관한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언어학, 문헌학 연구의 메카였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누렸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동방학연구소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위한 잠재성



을 보유한 동방 민족의 사회를 연구한다는 새로운 목표도 세우게 되었다. 역사 발전 이론을 믿었던 볼셰비키는 1930년에 동방학연구소를 다른 연구 기관과 합병하면서 소련 내 동방학 분야의 모든 학술 활동을 조절하게 했다. 1950년에 동방학 연구소는 모스크바로 이전했고 지속된 학술적 성과로 1980년 적기(赤旗)노동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아시아-북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는 러시아 최고의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술대회가 열린 홀에 들어서자, 역대 동방학연구소 소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중에서 고려인 출신인 게오르기 표도로비치 김(1924-89)의 초상화가 눈에 띄었다.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으로서 역사학을 공부한 게오르기 김은 1952년부터 동방학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974년부터 잡지 «오늘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동방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했다. 게오르기 김 소장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난 민족 해방, 사회주의 건설, 사회 발전 과정에 관해 연구한 공로로 노동적기훈장과 10월혁명훈장 등을 수훈했다. 게오르기 김의 일생 자체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1차 사료가 아닐까 싶었다.

작년보다 우호적인 한-러 관계라는 배경이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러시아 측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학술대회 행사 진행에 협조했기에 상황이 작년보다 더 원활하게 흘러갔다. 학술대회 전날 한국 측 참석자 대표들과 동방학연구소 소장 알리크베르 칼라베코비치 알리크베로프를 비롯한 러시아 측 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 때는 부소장 발렌틴 춘리에비치 골로바초프가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했다. 이 모든 일은 작년 제1회 학술대회에서는 없었던 일이었다.

학술대회 발표문과 토론문은 대부분 영어로 작성됐으며, 학술대회의 기본 발표 언어는 영어였다. 그러나 러시아어로 진행된 발표도 소수 있었다. 학술대회는 크게 2부로 나뉘었으며, 각 부에서 발표 세 건과 토론 세 건이 있었다. 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학술대회 개최에 열정을 쏟고 본인 또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31일에 유명을 달리한 조선대학교 고(故) 기광서 교수를 기리며 참석자 모두 일어나서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다.



학술회의 제1부 사회자석에서 발언하는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출처: 러시아학술원 동방학연구소)

우선 1부에서는 동방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발렌티노비치 보론초프가 사회를 맡아서 러시아와 미국 문서고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반도의 국내·대외 정치라는 주제를 제시했다. 첫 발표는 동방학연구소 알리나 사라페티디노바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의 대(對)조선 대외 정책(1884~1905년): 러시아 제국 대외 정책 문서고 사료를 기반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사라페티디노바는 19세기 말 주요 열강에 경제적으로 뒤쳐진 러시아가 극동과 조선에 대해 현상 유지와 조선의 중립화를 추구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러시아는 1884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 이에 토론회인 조선대 김미경은 당시 러시아 제국의 조선에 대한 전략적 계획과 그를 뒷받침해 주는 외교 문서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조선대 신세라는 「북조선의 1960년 고려연방제 제안에 미친 소련의 영향: 러시아연방 외교 정책 문서고(AVPRF) 사료를 기반으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북조선과 소련의 통일 문제에 관한 입장과 1960년 북조선이 연방제를 제안하기 전에 존재했던 차이점과 분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 이유를 분석한 후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고 평양과 모스크바가 결국 합의에 도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된 해결책인 남-북 고려연방제 제안을 도출하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추적했다. 이에 따르면 소련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과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를 보여주고 북조선을 소련의 영향권 내에 유지하고 중국-소련 분열이 심화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북조선이 중국으로 더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지지했다. 이에 토론자 동방학연구소 루벤 카자리안은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북조선이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 속도에서 전반적으로 남한보다 앞서 있었기에 평양을 일종의 유리한 위치에 놓았고, 이는 또한 남한이 북조선의 제안을 실제로 거부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이자 1부 마지막 발표자로 동방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쿠르미조프는 「남한 내 미국 정치에서 박정희 정권의 형성 (1961~63): 미국 국무부 자료를 기반으로」라는 발표문에서 5·16 이후 군정 시기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대해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다뤘다. 미국은 안정적인 반공(反共) 정부에 관심이 있었고, 박정희를 효과적인 지도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김종필을 위시한 강경파의 행동과 박정희의 군사 통치 연장 의도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짜증의 대상이었다. 미국이 원조 제공을 지연하고 외교적 항의를 표명하며 민간의 반대를 지지하는 가운데 박정희는 1963년 10월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박정희를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선택했다. 토론자인 조선대 이재훈은 특정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혼합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유용한지 질문을 던졌다. 또한 당시 남한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북조선은 ‘주체’를 강조하며 후원국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했는데, 남북의 중공업 우선 정책이 미·소(美·蘇)로부터 압박을 받아 어느 정도 후퇴한 것이 실제로 시기상조였는지 미·소가 남북 양국의 경제적 종속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도 질문을 던졌다.

동방학연구소에서 준비한 피자과 파이 등으로 구성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열린 2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나탈리아 김이 러시아 문서고에 나타나는 북조선 경제와 한인의 삶

에 관해 사회를 보았다. 첫 발표는 동방학연구소 나탈리아 마트베예바의 「1950~60년대 북조선 경제 발전에 대한 1차 사료로서의 소련 문서고」라는 제목의 발표로, 소련 문서고 사료가 경제적 발전의 세부 사항을 탐구하기 위한 고유한 정보 출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제 체제에 속했던 사람들의 견해와 이념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고유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경우 완전히 허구가 아니었고 오히려 당 노선에 맞게 편집된 실제 수치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발전을 더 유리한 빛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경우에는 보관 문서를 통해 공식적이고 향상된 데이터를 더 현실적인 수치로 추적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추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1950~60년대에 시작된 많은 추세가 냉전 내내 살아남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GIST 김동혁은 특히 외국인 연구자에게 최근 러시아 문서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 개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학술회의 제2부에서 두 번째로 발표하는 고광열 박사 (출처: 저자 제공)

두 번째는 필자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북조선-소련 대외 관계: 러시아국립경제문서고(RGAE)의 대외교류국가위원회(GKES) 자료를 기반으로」라는 제목으로 한 발표로, RGAE에 소장된 GKES 자료가 북조선-소련 사이의 교류를 살펴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이었다.



GKES는 1957년 설립된 소련 장관회의 산하 기구로 후기 소련에서 소련과 사회주의 및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경제·문화 교류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관련되어 GKES에는 북조선과 소련 사이에 있었던 교류의 실무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은 사료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물자 수출입, 인력 교류 등 다양한 양상의 대외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토론자인 동방학연구소 이상민은 이러한 실무적 과정이 몇몇 경제 협정의 결과물임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문서와 자료와 기존 공개 자료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 서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부활하고 있는 북조선-러시아 교류의 특징을 예전 조소 교류와 유비점을 찾아 분석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표는 GIST 권경택의 「1930년대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자 주제에 관한 한국학 연구와 새로운 연구를 위한 대안적 방향」이었다. 발표자는 문서와 자료를 치밀히 분석한 끝에 소련 당국이 구체적인 이주 과정을 엄격한 예산에 기반을 두어 계획했으며 새로운 정착지에서 삶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는 소련 체제가 고려인 이주자를 적대자나 첩자로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을 소홀하게 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또한 강제 이주는 고려인 사회를 파산시키지 않았으며, 고려인은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었고 일부 최상의 경우에는 상당한 물질적 보상과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소련 당국의 궁극적 목표가 고려인 이주자를 소홀히 하거나 일본의 잠재적 첩자를 섬멸한다기보다는 소련 중앙아시아를 위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동방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한국 학자들이 이들의 연구를 어느 정도 섭렵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연구소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학술대회장에서 다 못 나눈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었다. 러시아 보드카와 조지아 포도주는 모임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자마자 내년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비우호국’으로 지정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많은 학술 교류가 소원해지거나 끊기곤 했다. 그러나 전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한국과 러시아 학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재개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을 대비해서 오늘처럼 정치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학술적 대화의 끈을 끊지 않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자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2회 모스크바 한-러 학술대회 참석자 전체 기념 촬영 (출처: 러시아학술원 동방학연구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스크바 시내를 발 닿는 대로 걸었다. 정교회 크리스마스과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나 되었음에도 시내에는 여기저기 크리스마스트리와 새해 축하 문구가 아직도 연말연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사라졌을 이런 분위기가 2월 중순까지 이어진 것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밀월 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진 곳곳에 러시아어로 ‘중국 설 축하(S kitaiskim Novym godom)’에 덧붙여 중국어로 쓰인 “新年快乐” 메시지가 휘날렸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여전히 상당한 수 목격할 수 있었고, 미국인이나 서유럽 사람이 사라진 문서고나 도서관의 빈자리에는 중국 학자들을 볼 수 있었다. 모스크바 곳곳의 여러 안내 문구에는 2018년 월드컵 이후로 급격히 영어가 추가됐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중국어가 없는 곳이 없었다. 일반 식당에 들어가도 메뉴 설명이 영어와 더불어 중국어로 쓰인 곳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매년 러시아에 방문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 급변화로 연구 활동에서만 아니라 생활상으로도 불편한 점이 계속 늘어



모스크바 크렘린 인근 차 없는 거리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중국풍 조립식 건물  
(출처: 저자 제공)

나고 있다. 러시아에서 지내는 삶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역시 2022년 이래로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로 인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제약이 생겼음을 확인했다. 바로 사회보장번호(SNILS)가 있어야 핸드폰 심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 SNILS는 비자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핸드폰 로밍을 신청해서 러시아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 핸드폰 번호가 없으면 러시아 은행 앱 등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유머니(YooMoney) 카드를 만드는 등 어떻게든 대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여러모로 불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리고 올봄부터는 러시아 내에서 가상사설망(VPN)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연구 측면에서도 작년부터 외국인들은 러시아연방국립문서고(GARF) 등 몇몇 중앙의 문서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방문서고기구(Rosarkhiv)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시간이 걸린다고 반드시 허락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직항이 사라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모스크바에 들어갈 때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거쳤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로 여러 대러 제재가 해제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듯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선부른 예측보다는 그저 현상을 받아들여야 할 뿐인지도 모르겠다. 매 순간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앞으로 넓게는 한-러 관계, 좁게는 한-러 간 학술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일이 아니기에 여기에서 글을 끝맺는다. 